

옛 편지를 읽으며 여름에 물들다

아침을 열며

이승현
강진 백운동
원림 동주



요즘 청문회로 야단법석이다. 고위 공직자 또는 고위공직을 맡을 분들이 청문회장에 나와서 본인의 과거 행적과 감추려는 비밀들이 까발려져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 꼴 들을 보자니 강진 백운동 원림에 건립되는 전시관에 맡길 유목들을 정리하다 본 다산의 편지가 떠올랐다.

“남이 모르게 하고 싶으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남이 듣지 못하게 하고 싶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것만 한 것이 없다. 천하의 재앙과 우환, 천지를 뒤흔들며 자신을 죽이고 가문을 뒤엎는 죄악은 모두 비밀리에 하는 일에서 빚어지는 것이니 일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편지 한 통을 쓸 때마다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마음속으로 빌어야 한다. ‘이 편지가 큰길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열어보아도 내게 죄를 주는 일이 없겠는가?’ ‘이 편지가 수백 년을 전해 내려가 수많은 지식인에게 공개되어도 나를 조롱하는 일이 없겠는가?’ 그런 다음에 봉투를 붙여야 한다. 나는 짧아서 글씨를 빨리 쓰다 보니 이런 경계를 무시하는 일이 많았다. 중년에는 재앙이 두려워 점차 이 방법을 지켰는데 아주 도움이 됐다.”

다산이 강진에 왔다 돌아가는 아들에게 준 편지글이다. 참으로 무릎을 치게 되는 경계(警戒)이다. 청문회장에 불러 나온 인사들, 용산의 아방궁이나 크고 작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다산의 경계를 가슴에 새겨 지키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자신을 죽이고 가족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아! 한순간에 자신과 가문이 몰락해 버린 다산의 뼈저린 후회가 들리는가. 다산이 앓아 차를 마시던 백일홍꽃 붉은 백운동 원림 수소실에서 연못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몽클해 왔다.

강진 백운동 전시관에 전시될 전시물 중에는 유독 옛사람들의 편지가 많았는데, 학문의 토론부터 집안 대소사, 지인들 간의 안부나 사제 간의 교육 등 개인사, 가족사, 문중사, 정치사 등이 모든 일상과 시대상은 물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담겨 있어 흥미롭다. 다산이 백운동으로 보낸 차(茶) 제다법이 담긴 편지처럼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되기도 한다. 편지가 이렇게 다양한 역할과 콘텐츠가 된 것은 그 당시 소통 수단이 간찰이라는 편지가 유일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산 문집에 실린 편지가 220여 통 전해지고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흙어져 있던 편지 120여 통을 모아다산 간찰집으로 펴냈으니 드러난 것만 300여 통이 훨씬 넘는다. 다산 간찰집에 수록된 편지를 100여 통 읽다 보니 한편, 한편 인생의 희노애락과 풍상(風霜) 이 담겨있다.

요즘 짧고 간결한 형태의 콘텐츠인 숏폼의 시대라고 하는데 옛사람의 편지가 그 전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형식과 내용, 용도가 다양했다.

“선비가 입신하여 임금을 섬김에는 오직 이 목민(牧民)이라는 한 가지 일만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마음을 씻고 정성을 다한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실의(失意)하게 되어 백성을 운택하게 할 길이 없어지자, 옛사람이 남긴 언행 40권을 모아〈목민심서〉라 이름 지었습니다. 지금은 읽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형(兄)께 처음으로 이 책을 드리니 제사가 지난 뒤에 함께 이 책을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이 편지는 1820년 한익상에게 쓴 것인데 이 편지로 목민심서 초고가 완성된 시기와 창작자들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사를 만에 장사 지낸 것이 비록 유언을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끝나자마자 편안하게 집에 있는 것은 예(禮)가 아니다. 네가 무덤 곁에 여막을 짓고 5월에 돌아온다면 3개월 장례를 치른 것과 같은 예법이 된다. 내일 산소 아래로

나아가서 초하루와 보름에만 집에 돌아와 제사를 지내고 그 밖에는 산소에 있어야 한다. 아침저녁으로 무덤에 곡을 하고 또 한낮에 또 곡을 해라. 이렇게 5월 보름까지 해야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할 만에 산 속에 두고는 집 안사람 중에 모시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이는 오랑캐에 가깝지 않겠느냐. 반드시 결단해서 행하도록 해라.’

다산이 강진 제자 황상에게 보낸 것으로 그 당시 장례의 예법을 알 수 있는 편지글이다. 요즘의 장례식과 비교해보면 극한의 장례문화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장례식이 마치 주검 처리 기간이라 느낄 만큼 형식적이고 의무적이라 허전하고 송구함을 감출 수 없다. 형식이 의식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모바일 중심의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쇼츠, 틱톡, 릴리 같은 수단들이 편지, 교육, 학습, 폭로 등을 대신하고는 있지만 확산성이나 신속성으로 보자면 편지와 비교할 수도 없는지라 자신과 상대방, 집단을 망치는 사고가 많아 신중해야 하고 규제가 더해져야 한다.

손으로 꼭꼭 눌러쓴 위문편지나 부주전 상서 같은 문안 편지, 혼인 때 상대에게 보내는 사주단자(四柱單子) 같은 수고로운 정성이 그림기도 하다. 더구나 쓰는 이의 성품이나 인격, 개성이 드러난 글씨도 볼 수 없고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그 편지가 하나의 작품이 되고 유품도 될 수도 없으니 아쉬울 수밖에 없다. 백운동 원림을 조성한 1대 동주부터 12대 동주까지 시문과 사주단자, 문중계책, 유언, 가훈 같은 친필 편지를 모아 족자로 만들어 걸어 놓으니 머나먼 산소에 가지 않아도 선대 조상들을 뵈는 것 같고 숙연해진다.

전시관에 걸고 관람객에게 보여도 구경거리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 360여년 이어온 종가의 궤적과 동주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재산을 모으고 유명한 그림을 수집하는 것도 좋지만 고려청자가 아니어도 가족들의 편지를 쓰고 모아 보전한다면 그것이 가보(家寶)가 아닐까 싶다.

社說

‘이민청 최적지’ 전남, 유치 사활 걸어야

도, 외국인 증가율 전국 1위

전남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청 설립 최적지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전남지역이 외국인 유입과 교통 편의성, 수요 및 정책 인프라, 업무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이민청’ 설립 최적지로 꼽힌다. 전남도는 최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전남은 지방소멸 대응과 맞물려 이민청 최적지라는 분석이다.

전남은 최근 5년간 외국인 증가율이 51%로 전국 1위를 기록해 이민청 유치 시 수요가 높다. 실제 전남도의 등록 외국인인구는 지난 2019년 3만805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5만7547명으로 급증했으며, 체류자격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도 60%로 전국 1위다.

서남권 관문 공항인 무안국제공항과 목포, 광양, 여수, 완도 등 무역항 4개소, 전국 29개 연안항 중 11개소가 있어 외국인 유입에 효과적인 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수와 무안공항, 목포, 광양을 비롯 인접지역인 광

주 등에 5개의 출입국관서 등의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전남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구가 전무함에 따라, 현 정부가 인천에 신설하고 있는 재외동포청, 사천 우주항공청에 이어 전남 이민청 신설이 통과된다면 입지 기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남도의 이민청 유치 노력은 절실하다. 도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인민국’을 설치했으며, 오는 2025년에는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도 설립·운영도 계획됐다. 전남도내 이민청 설치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국가기관이다. 전남지역은 산업, 농업 분야 등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고령화와 20·30세대 유출이 커서다. 이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많다보니 이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업무 편의시설이 절실하다. 아쉽게 21대 국회에서 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됐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유치를 위한 철저한 대비와 전략을 통해 전남도는 사활을 건 유치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남 수산가공 다품종 경쟁력 필요하다

2조 육박·4년째 전국 1위

전남도는 2023년 기준 수산가공품 생산액이 2조원에 육박해 전국 1위를 했다. 지난해 수산물가공 생산액은 1조9933억 원으로 2022년 1조8772억 원보다 1161억원(6.2%)이 증가한 것으로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020년 1조5136억 원을 넘어선 이후 가파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 대표 수산물은 단연 김이다. 김은 국내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으로 2023년도 1조원 이상 수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출시장도 성장하면서 가공 생산액이 전년 대비 3971억원이 증가했다. 전국 마른김과 조미김은 2조123억 원으로 수산가공품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기록했으며, 이중 전남 생산액이 60.7%인 1조2221억 원으로 글로벌 김 산업을 견인했다. 김 외에도 참치 913억원, 새우 217억원, 다시마 178억원, 멸치 165억원 등 가공 생산액이 1473억원으로 2022년에 비해 330억원(28.4%)이 증가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김 산업 진흥구역 지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마른김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수산가공·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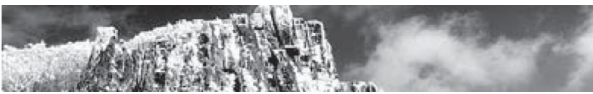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해안을 끼고 있다. 바다를 통해 얻는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다만 도내 전체 수산가공품 생산액 중 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최근 김 소비와 수출 등에 힘입어 생산량이 부족할 정도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산물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등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복은 생산량 대비, 소비 부진으로 늘가려하락 등을 겪고 있다. 위태로운 수산가공 산업 구조에서 전남이 ‘수산 1번지’를 계속 유지할 지는 의문이다. 앞으로 수산가공품 생산액 1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김 뿐만 아니라 다품종에서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 전환이 시급하다. 대체적으로 1·2차 생산 가공에 그치는 산업구조를 탈바꿈시켜야 한다. 통일신라시대 장보고는 완도 청해진을 기반으로 해 바다를 개척한 해상왕으로 통한다. 전남 수산업계가 수산가공품 분야에서 다품종 고부가가치를 올려 자랑스러운 ‘장보고의 후예’로 거듭나길 바란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전남일보 e-mail
webmaster@jnilbo.com

전화
(062)510-0321

서석대



잠 못 이루는 밤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폭폭 찌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밤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熱帶夜)’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열대야는 본래 기상용어가 아니었다. 일본의 기상 수필가 쿠라시마 야츠시가 1966년 저술한 ‘일본의 기후’를 통해 처음 사용됐다. 이후 일본기상청이 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날을 열대야로 정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쓰는 용어와 기준을 그대로 도입했는데, 2009년부터 열대야 발생 기준을 하루 최저기온에서 밤 최저기온(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으로 변경했다.

열대야는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 빈도와 기온 상승세 등이 점점 가팔라지는 추세다. 특히 2010년 이전만 해도 전국의 연 평균 열대야 일수가 10일을 넘긴 적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됐던 1994년(16.8일)을 제외하고 거의 없었는데, 2010년부터 빈번해지고 있다. 실제 2010년 11.5일, 2013년 14일, 2018년 16.6일, 2019년 10.1일, 2022년 13.2일 등 10일 이상 열대야 현상이 발생한 해가

많아졌다.

최근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구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해 올 여름 열대야도 종전 기록을 뛰어 넘어 ‘역대 최다’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감온도가 3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슈퍼 열대야’도 자주 나타날 전망이다. 극한 더위를 어떻게 넘길지 걱정이 앞선다. 그나마 올 여름은 한국과 시차가 7시간 나는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 잠 못 드는 밤을 위로해주고 있다. 어차피 제대로 잠을 못 잘거라면 올림픽 경기라도 보자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구의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다. 기후 변화는 이제 인류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해졌다. 당장은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우리 앞에 찾아온만큼 건강 관리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철저하게 대비해 안전한 여름을 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권범 취재1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